Mongolia

몽골사무소

몽골에서 열매 맺는 한국 딸기

몽골 신선식품시장의 성장

"제가 2005년 1kg당 800투그릭(352원)에 팔던 오이가 2019년 현재 1kg당 1만 2,000투그릭(5280원)에 팔리고 있어요."

몽골 농업타운 관계자의 말이다. 몽골의 신선 농식품(각종 과일 및 견과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의 수입 규모는 2013년 731만 6,000달러(약 84억 원)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8년 1,722만 9,000달러(약 199억 원)로 약 135% 성장했다. 유제품과 육류를 주식으로 섭취하던 몽골인들이 건강에 대한 이슈와 다양한 식문화를 접하면서 신선 농식품의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다.

몽골에서 자라나는 한국산 신선식품

강원도와 몽골 튜브도는 1999년 농업교류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몽골의 자립 영농을 위한 선진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고,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튜브도에 강원도 농업타운 3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농업타운에서는 지하수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종자와 필요한 농자재는 한국에서 가져온다. 비료는 물류 비용상의 문제로 현지의 퇴비를 발효시켜 사용 중이다. 이렇게 재배된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6종과 배추 등 엽근채류 7종은 검역과 포장을 마친 뒤 몽골의 대형 유통매장과 한국식당으로 납품되고 있다.

이 중 몽골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딸기의 경우, 당도가 높은 설향 품종이 주로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몽골은 일교차가 크고, 해발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많은데 이로 인하여 딸기의 당도가 높다. 크기가 커질수록 더욱 맛있는 것이 특징이다.

딸기 수급을 향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2016년 몽골에 진출한 이마트는 '몽골 사람들 100세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올 4월 한국 품종의 딸기를 몽골에서 재배하고 있는 'агроальфа' XXK(아그로)와 함께 협력하고자 계약했다. 총 6,250m^{2}의 농경지에 딸기 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агроальфа' XXK(아그로)는 한국의 농업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한국의 '설향' 딸기를 몽골 땅 위에서 사계절 내내 재배하고, 이마트 하이퍼마켓에 단독으로 납품하게 되었다.

몽골의 전체 산업에서 농업의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1,041억 6,620만 투그릭(약 448억 원)으로 전체 1%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감자 및 각종 야채 소비를 국내생산으로 자급자족하고 농식품 수확물 대외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 몽골 튜브도에서 재배되는 딸기 |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구축

한국의 첨단 농업기술 지원으로 몽골의 딸기 재배가 점점 수월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SFS융합연구단은 튜브도 강원도농업타운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열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는 딸기 재배 온실에 한국형 스마트팜 솔루션을 적용해 생산량과 품질 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에 구축한 시범단지는 기존의 한국형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양액 제어 기술을 적용해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일 5차례 이상 물을 주기 위해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딸기 작물에 필요한 최적의 광합성을 자동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됐다.

| 기후 조건으로 인해 최선의 방법인 하우스 재배에 한국형 스마트팜 접목 |

Key Point

수확이 힘든 시기 색다른 품종 수출로 파이를 키우자

- 몽골은 기후 조건으로 인해 하우스 재배가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면적 대비 수확량이 적은 작물을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한국의 신선 농식품(과일) 수출업체는 현지 시장의 수출 확대를 위해 2가지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몽골에서 재배가 힘든 12월에서 1월 사이 수출량을 확대하는 것과 킹스베리와 같은 색다른 품종을 수출하는 것이다. 향후 수출을 안정화하기 위해 현지에 대형 냉동 물류창고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현지 물가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면, 현지 농식품 유통의 전체적인 파이를 확장시켜 한국 농식품의 점유율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몽골 관세청, 「2013-2018 수출입 현황」, 몽골 통계청, 「산업 종류별 투자규모 2018」,
N-news, 「몽골에서 재배된 한국 품종의 딸기 오직 이마트에 납품된다」, www.mk.co.kr